

국내 주거지 생활권 계획개념 및 사례분석

이 유 미(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많은 수의 주택들이 뉴타운이나 신도시 등 대규모 주거지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주거지의 생활권 계획개념과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발표는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발제자는 국외 주거지 생활권 계획 개념의 흐름과 적용사례를 발표한 후 국내 주거지의 생활권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주거지의 중생활권 영역을 대상으로 생활권별 학교, 상업시설, 근린공원과 같은 시설의 배치계획 뿐 아니라 대중교통체계, 보행과 녹도 네트워크 같은 생활권 연결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즉, 국내 주거지의 생활권 구성방식을 비교분석하여 생활권 계획 및 공간구조특성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발제자가 제시한 분석내용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주거지 계획을 반성하고 미래 주거지 계획의 방향을 생각하게하므로 주거지 계획방식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은 더 강조되어야 하는 내용과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권 내에서 학교의 배치계획의 변화과정에 대해 잘 정리 분석하였고 발제자의 발표내용 중에도 약간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해당 주거지의 입지문제이다. 학교의 배치계획 및 공간구성방식은 해당 주거지가 강북 뉴타운과 같이 도심지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제2기 신도시들과 같이 서울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해당 주거지가 강북 뉴타운과 같이 도심지에 위치한다면 학교의 공간 구성방식은 운동장도 없이 고도로 복합화 될 수도 있는 반면 제2기 신도시에 위치한다면 강북뉴타운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학교건물과 옥외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주거지내에서 학교의 배치계획도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배치계획은 주거지의 입지에 따라 학교의 공간구성방식과 함께 분석된다면 더 구체적인 분석결과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근린공원 배치계획에 대한 유형화작업 자체는 근린공원 배치 방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도출한 타당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분석시 추가되었으면 하는 요소 중 하나는 해당 주거지의 경사도나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이다. 2000년대 근린공원의 배치를 중심가로변 배치와 생활권 외곽으로 구분하였는데 중심가로변 배치에 해당하는 주거지는 경사가 심한 지역이면서 기존에 중심가로가

발전되어있는 유형이다. 생활권 외곽배치에 해당하는 대부분 주거지는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녹지 등급이 높아 녹지를 보존 등을 고려하여 근린공원의 위치가 정해진 곳들이다. 그러므로 해당 주거지의 경사도나 녹지의 등급과 같은 자연환경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었다면 또 다른 방식의 유형화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행 및 녹도네트워크의 경우 생활가로 조성과 같은 구분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단, 생활가로가 조성된 주거지일지라도 생활권의 규모자체(예:생활권의 반경)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활권 규모자체의 차이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한다면 주거지계획을 하는 실무진들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러한 생활권계획에 대한 연구는 주거지 계획에 있어 근간이 되는 중요한 연구이므로 노인과 어린이를 고려한 생활권 계획, 단독주택지에 있어서 생활권 계획, 다양한 주택사업 유형과 주변 환경에 대한 생활권계획 등 그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심도 깊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국내 주거지 생활권 계획개념 및 사례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주거지계획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신 연구자에게 감사드리며 이 발표를 통해 앞으로 주거지계획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